



즉시 배포용: 2019년 2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대기 질을 개선하고 발전소 배출로 인한 유해한 오존을 줄이기 위한
규제안 발표**

방안은 피크용 전력 기간에 작동한 가장 더러운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

저탄소,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소로의 뉴욕 전환 강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하려는 주지사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과 목표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가 피크용 발전소에 대한 새롭고 엄격한 요건으로 대기 질을 개선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안을 공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가장 더운 날들에 가동되는 “피크용”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출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더럽고, 비효율적인 시설은 또한 탄소 오염의 주범입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벗어나는 것은 Cuomo 주지사의 국가 주도적인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을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당 규제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퍼센트 줄이고, 2040년까지 100 퍼센트 청정 전력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무서운 현실이며, 연방 정부가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동안 뉴욕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안은 뉴욕주의 가장 취약한 지역의 전력망에서 낡고 더러운 발전소를 없애려는 중요한 단계이며, 청정 에너지 경제와 다가올 세대들을 위한 더 건강한 지역사회를 개발하려는 뉴욕주의 리더십을 증명합니다.”

이 방안은 더운 여름날 오존이나 스모그의 유해한 수준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nitrogen oxides, NOx)의 배출에 대한 더 낮은 기준을 확립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50년 이상이며 비주기적으로 작동하는, 주 전역의 발전소에서 수십 개의 간단한 사이클과 재생 연소 터빈은 새로운 터빈의 배출량보다 최소 30 배 더 높은 수준의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이 발전소가 작동하면 이러한 터빈은 뉴욕의 일일 발전소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하며, 청정한 자원보다 소비자에게 더

적은 전력을 생산합니다. 또한, 이 발전소들은 [환경적 사법](#) 구역에. 인접한 경우도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력망을 보존하기 위해, 이 방안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통제 요건을 단계적으로 처리하여, 청정 자원의 전력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제안은 또한 발전소 소유주들에게 무배출 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저장소의 설치 통해서 부분적으로 새롭고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저장소는 가장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에너지를 내보내고 대기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시기에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전력 자원의 작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안은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에게, 특히 뉴욕주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더러운 발전소 근처에 위치한 지역사회에게 더 깨끗하고 건강한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탄소 중립적인 경제로 전환하려는 주지사의 국가 주도적인 목표를 지지할 것입니다.”

뉴욕주공공서비스위원회(NYS Public Service Commission)의 John B. Rhodes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C)가 제안한 규제는 더러운 피크용 발전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현명하고 대담하며 필요한 조치를 보여줍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더러운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줄이는 일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뉴욕 주민들에게 청정하고, 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이라는 주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이고 청정한 해결책을 전달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DA)의 Alicia Barton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우리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유해한 배출량을 줄이며 전력망의 복원력을 향상할 것입니다. 이는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미래에서 모두 중대한 요소입니다. 에너지 저장소 배치 확대를 통해 피크용 발전소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일은 100 퍼센트의 무탄소 전력 시스템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국가 주도적인 비전을 달성하고 모든 뉴욕 주민에게 건강과 환경적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전역에서 지역사회는 더 청정한 인프라를 개발하고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더 환경친화적인 습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뉴욕주에 가장 높은 수준의 배출량 감소를 고수하게 하여, 수년 동안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지속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제안은 뉴욕주 등록부(State Register)에 오늘 게재되고 있으며, <http://www.dec.ny.gov/regulations/116131.html>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는 2019년 5월 6일 올버니, 2019년 5월 13일 롱아일랜드, 2019년 5월 14일에 뉴욕시에서 이 제안에 대한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2019년 5월 20일 오후 5시까지 서면 논평을 받을 예정입니다.

뉴욕의 국가 주도 재생 에너지 계획

Cuomo 주지사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은 2040년까지 뉴욕주 전력을 100% 탄소 프리로 생산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탄소 절감 목표로, 최근 캘리포니아가 채택한 탄소 절감 목표보다 5년 앞서 있습니다. 이번 신규 의무 조항은 뉴욕의 성공적인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 의무 조항의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전력 생산량 50% 달성 목표치가 70%로 증가한 것에 기반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규모의 재생 가능 에너지원 증가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뉴욕주 해상 풍력 발전 목표를 2030년까지 2,400 메가와트에서 2035년까지 9,000 메가와트로 4 배 증가
- 2023년까지 3,000 메가와트에서 2025년까지 6,000 메가와트로 배가 된 태양광 배치 배가
- 청정 에너지 표준을 통해 새로운 대규모 육상 풍력 및 태양 에너지를 배가시키는 것 이상
- 뉴욕주의 기존 재생 가능 자원의 기여도 및 잠재력 최대화
- 2030년까지 1,500 메가와트에서 2025년까지 3,000 메가와트의 에너지 저장 용량을 배치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